

# 록이춘유가라



[해제]

<록이춘유가라>는 춘삼월 좋은 시절을 맞아 녹음 중에 흥금을 풀어놓고 누구에게도 풀어보지 못한 말들을 춘흥과 함께 노래한 규방가사이다. 한지 두루마리에 연속된 줄글형태로 필사되어 있다. 4음보 율격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율격가사이다. 작자는 미상이며, 필사시기는 戊辰이라는 干支로 보아 1928년 이후로 추정한다. 작품은 동네 여성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나서면서 봄날을 만끽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집가던 광경을 회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시대 여성이 지닐 수밖에 없었던 숙명을 한탄하고 있다. 여성으로서 사회적 책무라고는 가정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시기였기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제몫을 다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다. 그러나 한탄조만 있을 뿐 이를 넘어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원문]

록이춘유가라

어와우리 여반들으 동풍삼월 호세절에  
 풍일은 화창하고 청경도 가려하드  
 수양근늘 뉘피안조 벗부는 저괴고리  
 도화니화 흥게나랴 주인춘는 연조로드  
 스펡세우 목등으는 초적소리 처롱하고  
 등산님수 소년조는 춘복을 지룩하드  
 종뒤에 노방정은 모릉호걸 초조가고  
 난정에 모춘히는 강좌이란 다모엿드  
 조흘썩고 남조들은 삼춘유락 조흘썩고  
 헛부다 우리여조 동당의 심중하야  
 형제숙절 육칠스름 빅연동락 하조쓰니  
 광음니 훌훌하여 월노가연 지촉하드  
 선왕에법 미련하여 솜동뒤의 어길손가  
 규문안에 심중하여 빅욕갓튼 이훈몽을  
 동방화축 저문밤에 심면스람 무슨일고  
 춘풍도 호탕하다 한나무의 피노소치  
 동성로 헌허진니 부모형제 멀이하고  
 디조우괴 뉘딤인고 손천도 눈에설고  
 풍토도 달은지랴  
 구고자정 디국하나 황송하기 그디업고  
 실가은정 중하하나 붓그릿니 알선지라  
 안면니 심소하니 통장한곳 전히업고  
 석성도 모라오니 반감하기 조심이라  
 단잠을 놀닉하니 스관하기 란럼이요  
 먹고진 것 존절하니 음식도 무미하드  
 비복니 전홀시랴 하든말도 주리치고

이웃스름 흥불씨락

건든거렴 주저하늬 세모계셔 부르시면  
적망홀가 겁이나셔 가슴이 두군두군  
세부님니 드로시면 작저훈일 업건무논  
낮빚치 썰긋썰긋 우식시면 경식롭다  
늬시면 무식하되 어나닷 여류세월  
고향니 막막하고 흥게크든 동유싱각  
석스가역 가역하든

동충의 발근달은 우리답에 빗쳐온가  
남천에 가는구름 디정의 회포로다  
풍편에 편디보니 심정만 식로웁고  
몽중에 봉착하나 썩다른니 허스로다  
양춘니 유정하여 조흔바름 불너온가  
노상에 저잉무논 무슨소리 품어온가  
무망에 일봉찰니 귀령부모 턱일완니  
열손가락 자자솝으 일일니 여숨추락  
바든날 얼는닷쳐 고손으로 도라든니  
그리든 우리양친 드러가면 보련만은  
동세출가 제종분을 승면하되 간절하든  
인정촌탁 우리당늬 각쳐로 통기하여  
훈가디이 흐친입히 옛썩리로 도라오고  
훈세에 크든고고 노든물로 모와든든  
조흘씨고 조흘씨고 상봉하니 조흘씨고  
일장담소 하여보시

천연고독 우리답의 옥손당씨 어디두고  
송실이며 이실이락 변성흙은 무슨일고  
그려하늬 옛말숨에 세답가면 남편도고  
친정오면 으비도촉 이러셔논 당소저요  
출가하면 당씨부인 우리성 여디갈가  
인동디성 우리향중 각손디정 우리동늬  
나가보면 일분이요 들와보면 동실이락  
고학물며 우리동유 이렷탓 다당하니

남조을 양두홀가

몇달스니 세답소리 오그리든 우리손발  
부모실하 횡락하여 어와흔번 피여보시  
옛날부터 부녀들니 양신가절 노림잇디  
숨월숨일 송스일에 가동으여 불제하고  
오월오일 단오절에 초강으녀 경도하고

칠월칠일 직여성은 영국우여 결교하고  
치치권니 우티스도 척피취외 하여셔르  
오날날 우리들니 만능기도 히흔하고  
이별홀일 더욱설드  
소림도 만큰마는 디치담락 더욱쫓타  
이혹스의 도리연은 천륜락스 설어하고  
외원의 화수회는 친척정 덜겁도드  
춘경동 조홀씨고 이씨을 허부홀가  
우수봉 늪푼고디 안계도 활달하다  
손중에 무벌미요 약초가 겸어과르  
암송에 속붓치고 힌밤딛고 화전수어  
딘솔회로 턱일하니 숨월망일 더욱쫓타  
출가흔 우리여즈 얼믹는 모여든고  
묘몰이르 박셔방딛 우리횡증 암셔우고  
스촌이르 송셔방딛 세연니 이십이요  
다손이르 이셔방딛 방연니 동갑이르  
법손이르 최셔방딛 세연니 십구이요  
명고이르 이셔방딛 방연니 십팔이르  
창영이르 정셔방딛 세연니 십칠이요  
석전이르 이셔방딛 방연니 이팔이르  
주인모른 공사인나 드로부여 몇몇친고  
흔잔한 의흥씩과 흔출할 사천창씩과  
순후한 윤동씩과 단정한 흠실씩과  
영오한 임호씩이 춘풍일자 원만하다  
운빈옥골 선경이요 록의흥 솟밧치라  
정정한 고은턱도 약야괴의 영월이요  
낭낭한 우숨소리 소양전의 히여화라  
그남은 으린소져 뉘뉘니 짜라쓰고  
진히씩의 남아이요 월골씩의 희아일묘  
골씩의 난경이요 농산씩의 록싱이라  
요디연에 모와온즈 팔션여가 느리온덧  
느흔전에 버려서니 천불송이 와연하드  
중봉에 좌정하여 운물을 구어보니  
움움호 저녁들은 만석정니 이운인구  
갑을병정 품을하든 평천장이 어딴이요  
곡성추야 병세주든 황석공니 여기닌니  
여와씨 보천시에 만천성신 머러진가  
진시황 평석일에 구주암석 모룩온가

유평들 버리물결 익수조가 지촉하고  
화심손 척촉화논 두건소리 논문하듯  
다시헌번 이좌하여 송송봉 올라가이  
전정의 유기관은 주부자의 셋귀로듯  
강산니 광막하고 그윽금어 새락하듯  
님으로 바라보니 가야산 점문구름  
최고운의 선촉이요  
동으로 가라치니 팔공산 자느쓰결  
옛티조의 전정이라 셔으로 도르보니  
선적스씨 북소리는 은니들니군 나북으로  
지점하니  
덧흙스 신선바우 천련성학 적요하듯  
산음으로 도르가이 송복도도 울밀하듯  
여부여당 우리선영 길마지가 이안니가  
훈식에 침각하든 유조후의 선화리요  
여락을 귀운하든 하니부의 향양이려  
조선의 증흔기운 봉봉니 소스잇고  
우리부모 원통체빅 죽초가 쳐쳐하듯  
우리들니 출가하나 혼조선의 혈기바듯  
추우추송 침소절에 불심감충 더욱하듯  
부모을 모시웁고 오날날이 노림을  
명명흔져 가온디 우리선령 아르실가  
저근닷 도라보니 석양니 산의잇고  
원촌에 저역연고 곳곳디 느느군으  
인심헝락 얼미련고 흥인비리 이온니가  
우산에 써러젠날 제경공의 눈물이라  
루루천손 저무들은 귀인달스 일반이려  
흐물며 우리겨조 부유천디 의존하듯  
오날날 이노림을 빅연휴에 그뉘알고  
이러트 탄식하이  
상좌에 소부인니 연정식 하느말슴  
너의들도 스업하면 빅세유명 하느이려  
호락부황 실숯품은 양스의 구구로듯  
싱어 우환안락 은전인의 훈기시라  
친정니 좃트하나 황송녹의 어이허리  
빅연동락 너의실가 어셔어셔 도르가셔  
당부인의 호성으로 분호을 총디하고  
티님의 티고빅와 자식나니 단정하고

경강의 덜숨빅와 가업을 득스리고  
고똥보의 숨천으로 즈손을 모양하고  
송척히의 횡실따가 가법을 디치주어  
부녀도리 따르고오면 허날니 감동허야  
복록을 정디허와 수부다남 화숨축과  
부귀강영 괴오복과 여측여스 열여전에  
천추만세 빗나리르  
만좌가 다시웃고 도르갈길 죄촉한다  
빅수의려 우리모친 걱정니나 아니시며  
허날갓뎡 연소낭군 괴걸니나 안이실가  
소비을 경계허며 세분을 정키열고  
뜰에기야 딛디마라 이웃스름 놀닐시르  
마음을 다시조본 여공을 힘을써서  
현철부인 되어서로 록셔노인 그말더고  
신필로 괴록허야 후세에 전허리르  
무진숨월 망에서 우공협셔 스산초을  
모숨월 상춘에 번등우히

[현대역]

록이춘유가라

어와우리 여반들아 동풍삼월 호시절에  
풍일1은 화창하고 청경도 가려2하다  
수양그늘 높이앉아 벗부르는 저꺾꼬리  
도화이화 함께날아 주인찾는 연자로다  
사풍세우3 목동아는 초적소리 처량하고  
등산임수 소년자는 춘복을 재촉한다  
장대에 노방정은 무릉호걸 찾아가고  
난정에 모춘화는 강좌이란 다모였다  
줄을시키고 남자들은 삼춘유락 줄을시키고  
헛부다 우리여자 동당의 생장하여  
형제숙질 육칠사람 백년동락 하자더니  
광음이 훌훌하여 월노가연 재촉한다  
선왕의법 마련하여 삼동대에 어길손가  
규문4안에 생장하여 백옥같은 이한몸을  
동방화촉5 저문밤에 생면사람 무슨일고  
춘풍도 호탕하다 한나무에 피는꽃이  
동서로 현화지니 부모형제 멀리하고  
지자우기 뉘집인고  
산천도 눈에설고 풍토도 다른지라  
구고자정 지극하나 황송하기 그지없고  
실가은정 중하오나 붓그리니 알선지라  
안면이 생소하니 통장한곳 전혀없고  
석성도 몰라오니 반감하기 조심이라  
단장을 놀래깨니 사관하기 관령이요  
먹고진것 돈절하니 음식도 무미하네  
비복이 전할시라 하던말도 주리치고  
이웃사람 흥볼세라 걷는걸음 주저하네  
시모께서 부르시면 책망할까 겁이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시부님이 들오시면 작저한일 없건마는  
낮빛이 울긋불긋 웃으시면 경사롭다  
내시면 무색하되 어느덧 여류세월  
고향이 막막하고 함께컷던 동유6생각  
석사가 역력하다  
동창에 밝은달은 우리집에 비쳐온가

남천에 가는구름 지정의 회포로다  
풍편에 편지보니 심정만 새로웁고  
몽중에 봉착하나 깨다르니 허사로다  
양춘7이 유정하여 졸은바람 불어온가  
노상에 저앵무는 무슨소리 품어온가  
무망에 일봉찰이 귀령부모8 택일왔네  
열손가락 자자꿈아 일일이 여삼추9라  
받은날 얼른닥쳐 고산으로 돌아드니  
그리던 우리양친 들어가면 보련만은  
동세출가 제종반을 상면하기 간절하다  
인정촌탁 우리당네 각처로 통기하여  
한가지에 흠은없이 옛뿌리로 돌아오고  
한때에 크던고기 놀던물로 모여든다  
졸을시고 졸을시고 상봉하니 졸을시고  
일장담소 하여보세  
천년고독 우리집에 옥산당씨 어디두고  
송실이며 있으라 번성함은 무슨일고  
그러하나 옛말씀에 새집가면 남편되고  
친정오면 아비되차 이러서는 당소저요  
출가하면 당씨부인 우리성 어디갈까  
인동대성 우리향중 각산지정 우리동네  
나가보면 일분이요 들와보면 동실이라  
하물며 우리동유 이렇듯 다당하니  
남자를 양두할까  
몇달사이 새집살이 오그러든 우리손발  
부모슬하 행락하여 어와한번 피어보세  
옛날부터 부녀들이 양춘가절10 놀음있데  
삼월삼일 상사일에 가동아녀 불제하고  
오월오일 단오절에 초강아녀 경도하고  
칠월칠일 직녀성은 영국아여 결교하고  
채채권이 우태사도 척피취외 하여서라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게도 희한하고  
이별할일 더욱설다  
소림도 많건마는 지치담락 더욱좋다  
이학사의 도리연은 천륜락사 설워하고  
외원의 화수회는 친척정 즐겁도다  
춘경동 졸을시고 이때를 허부할까  
우수봉 높은곳에 안계도 활달하다

산중에 무벌미요 약초가 겸어과라  
암상에 속붙이고 한밤짓고 화전꾸어  
잔술화로 택일하니 삼월망일 더욱좋다  
출가한 우리여자 얼마나 모였던고  
묘몰이라 박서방덕 우리행장 앞세우고  
사촌이라 송서방덕 세연11이 이십이요  
다산이라 이서방덕 방연12이 동갑이라  
법산이라 최서방덕 세연이 십구이요  
명고이라 이서방덕 방연이 십팔이라  
창영이라 정서방덕 세연이 십칠이요  
석전이라 이서방덕 방연이 이팔이라  
주인모른 공사있나 들어보아 몇몇인고  
환란한 의흥덕과 헌찰할사 천창덕과  
순후한 윤동덕과 단정한 흠실덕과  
영오한 임호덕이 춘풍일자 원만하다  
운빈옥골 선경이요 녹의홍 꽃밭이라  
정정한 고운태도 약야기에 영월이요  
낭랑한 웃음소리 소양전에 해어화라  
그남은 어린소저 뉘뉘이 따랐던고  
진해덕에 남아이요 월골덕이 희아일묘  
골덕에 난경이요 농산덕에 녹생이라  
요지연에 모여앉아 팔선녀가 내려온듯  
나한전에 벌어서니 천불상이 완연하다  
중봉에 좌정하여 운무를 굽어보니  
암암호 저녁들은 만석정이 이아닌가  
갑을병정 품을하던 평천장이 어디매요  
곡성추야 병세주던 황석공이 여기있네  
여와씨 보천시에 만천성신 멀어진가  
진시황 평석일에 구주암석 모르온가  
유평들 보리물결 맥수조가 재촉하고  
화심산 척축화는 두견소리 난만하다  
다시한번 이좌하여 상상봉 올라가니  
전정의 유기관은 주부자의 셋귀로다  
강산이 광막13하고 그윽금어 쇠락하다  
남으로 바라보니 가야산 검은구름  
최고운의 선축이요  
동으로 가르키니 팔공산 자는뜨결  
옛태조의 전정이라 서으로 돌아보니

선적사쇠 북소리는 은이들이군 나북으로  
지정하니  
대흥사 신선바위 천년성학 적요하다  
산음으로 돌아가니 송백도 울밀하다  
여부여당 우리선영영 길마재가 이아닌가  
한식에 생각하던 유자후의 선화리요  
여라를 귀운하던 한니부의 하양이라  
조선의 장한기운 봉봉이 솟아있고  
우리부모 원통체백 죽초가 처처하다  
우리들이 출가하나 한조선의 혈기받아  
추우추상 침소절에 불신감창 더욱하다  
부모를 모시옵고 오늘날의 놀음을  
명명한 저가운데 우리선령 알으실까  
저근듯 돌아보니 석양이 산에있고  
원촌에 저녁연기 곳곳에 나는구나  
인생행락 얼마런고 흥진비래14 이아닌가  
우산에 떨어진날 제경공의 눈물이라  
누루천산 저무덤은 지인달사15 일반이라  
하물며 우리고조 부유천지 의존하다  
오늘날 이놀음을 백년후에 그뉘알고  
이렇듯이 탄식하이  
상좌에 소부인이 연정맥 하는말씀  
너희들도 사업하면 백세유명 하느니라  
호락부황 실숯풍은 양산에 구구로다  
생어 우환안락 은전인에 훈계시라  
친정이 좋다하나 황상녹의16 어이하리  
백년동락 너있을까 어서어서 돌아가서  
당부인의 효성으로 분호를 창대하고  
태임의 태교배워 자식나니 단정하고  
경강의 길쌈배워 가업을 다스리고  
고맹보의 삼천로 자손을 보양하고  
송백희의 행실따라 가법을 지켜주어  
부녀도리 따르고오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록을 정지하여 수복다남 화삼축과  
부귀강령17 그오복과 여측여사 열녀전에  
천추만세 빛나리라  
만좌가 다시웃고 돌아갈길 재촉한다  
백수의려 우리모친 걱정이나 아니시며

하늘같은 연소냥군 그걸이나 아니실까  
소비를 경계하며 세분을 정히열고  
뜰의개야 짓지마라 이웃사람 놀렐세라  
마음을 다시좁은 여공을 힘을써서  
현철부인 되었으니 녹서노인 그말더고  
신필18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리라  
무진19삼월 망에서 우공협서 사산고을  
모삼월 상춘에 번등우해

[각주]

- 1) 풍일(風日) : ‘풍양(風陽)’과 같은 말로 날씨를 이르는 말.
- 2) 가려(佳麗) : 모양이나 경치 등이 매우 아름다움.
- 3) 사풍세우(斜風細雨) : 비껴 부는 바람과 가늘게 내리는 비.
- 4) 규문(閨門)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공간인 규방(閨房).
- 5) 동방화촉(洞房華燭) : 동방에 비치는 환한 촛불이라는 뜻으로, 혼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을 이르는 말.
- 6) 동유(同遊) : 함께 놀던 친구. 동무.
- 7) 양춘(陽春) : 따뜻한 봄날.
- 8) 귀령부모(歸寧父母) :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을 여쭙는다는 뜻이다.
- 9) 여삼추(如三秋) :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이르는 말.
- 10) 양춘가절(陽春佳節) : 따뜻하고 좋은 봄철.
- 11) 세연(世年) : 나이.
- 12) 방년(芳年) : 꽃다운 나이.
- 13) 광막(廣漠) : 아득하게 넓다.
- 14) 흥진비래(興盡悲來) :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
- 15) 지인달사(至人達士) : 더없이 덕이 높고 이치에 밝아서 사물에 얽매여 지내지 아니하는 사람.
- 16) 황상녹의(黃裳綠衣) : 의(衣)는 위에 입는 상의, 상(裳)은 아래에 입는 치마, 황색은 정색(正色)이어서 존귀하고, 녹색은 간색(間色)이라 천한 것을 가리키는데 정색인 황(黃)이 아래로 가야 될 치마로 쓰이고 있다는 뜻으로, 본처가 밀려나고 첩이 득세함을 이르는 말.
- 17) 부귀강녕(富貴康寧)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 18) 신풀(辛筆) : 고생하며 애쓴 글씨.
- 19) 무진(戊辰) : 1928년으로 추정.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